

해방기 중국 동북지역 조선인의 해방 인식 - 시와 구술자료를 중심으로*

진 은 주**

■ 목 차 ■

- | | |
|---------------------------|-----------------------------|
| I. 서론 | III. 토지개혁과 생존 전략: 귀환과 정착 사이 |
| II. 주권 회복과 생존 투쟁: 해방의 양면성 | IV. 결론 |

[초록]

본 연구는 1945년 해방기 중국 동북지역 조선인의 시문학과 구술자료를 바탕으로, 조선인 사회의 해방 인식을 고찰했다. 해방이 단순히 식민 통치의 종결에 그치지 않고 '제자리 찾기'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경우, 그 경험이 민족적·경제적 제자리 찾기와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 조선인들에게 해방은 일본 식민 지배로부터 주권을 회복하는 민족적 해방과 공산당의 토지개혁 정책을 통한 경제적 해방이라는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났다.

민족적 해방은 주권 회복이라는 감격과 환희를 가져왔지만 동시에 공포와 불안을 동반한 복합적 사건이었다. 35년이라는 일제 식민치하에서 벗어났지만, 동시에 토착 한족들과 토비의 위협, 국민당의 추방 정책 등으로 인해, 귀환과 정착의 딜레마 속에서 생존을 위한 새로운 투쟁을 이어가야 했다. 반면, 공산당의 토지개혁 정책으로 얻게 된 경제적 해방은, 소작농에서 자작농으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변화가 아닌, '조선인 디아스포라'에서 '중국 조선족'이라는 정체성을 재편하며, 중국 내에서 새로운 사회적 위상을 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주제어: 해방, 조선인 디아스포라, 귀환, 중국동포, 토지개혁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6A3A01102841).

**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교수. eunju121@konkuk.ac.kr

I. 서 론

1945년 8월 15일 정오, 일본 제국의 패망이 라디오를 통해 공표되었다. 일왕은 고어체로 점철된 담화를 통해 일본의 항복 사실을 전달했으나, ‘항복’이라는 명확한 용어 대신 ‘공동선언 수락’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했다. 이는 끝까지 그들의 패배를 숨기려는 고의적인 의도가 다분했다. 역사적으로 이 순간을 ‘중전선언’이라고 명명하지만, 당시 조선인 대다수는 그 순간, 그 메시지의 함의를 즉각적으로 이해하지 못했다. 조선의 거리는 평소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정적과 혼란 속에 있었으며, 사람들은 그다음 날에야 비로소 실감나지 않는 ‘해방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었다.

함석헌은 이를, “해방은 우리가 자고 있을 때 도적같이 왔다”(함석헌, 1996: 397)고 표현하며, 해방이 우리 민족에게 충분한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도래하였음을 강조했다. 해방은 단지 정치적 의미에서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개인적 차원에서 완전히 새로운 상황과 직면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해방은 환희와 기쁨의 차원을 넘어 혼란과 준비되지 않은 현실에서 비롯된 다양한 갈등을 수반하였으며, 이는 조선 내부와 나라 바깥에서 거주하던 조선인 디아스포라 모두에게 동일하게 작용했다.

중국 동북지역에 거주하던 조선인들은 이러한 갑작스러운 변화를 극명하게 체감했다. 1945년 8월 9일, 100만 명이 넘는 소련군이 동북지역을 신속하게 점령했다. 이를 계기로 전세는 일본에게 불리하게 전개되어 악명높은 관동군은 단 일주일만에 붕괴하였다. 전황이 신속하게 변화하였으나 조선인들은 이러한 상황이 곧 해방으로 이어질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

느닷없이 찾아온 해방은, 35년 동안 제국의 ‘신민’으로 종속되었던 조선인들이 주체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새롭게 확립해야 하는 또 다른 역사의 전환점이 되었다. 해방 즉 ‘광복’은 심리적이나 현실적으로도 빼앗긴 주권의 ‘제자리 찾기’의 의미와 등치될 수 있다. 따라서 많은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다. 총독을 위시한 일본 군인들과 일본인들이 쫓겨갔고, 대동아공영권이라는 담론도 허황해졌으며, 오족협화로 포장되었던 만주국도 소멸되었다. 그리고 고향에서 굶어 죽기보다는 새로운 땅에 대한 희망을 품고 남부여대하고 국경을 넘었던 조선인 빈농들이, 일제의 강제이주 정책에 의해 만주에 자리 잡아야 했던 농민들이, 징용으로 탄광이나 군수 공장에 끌려갔던 조선인 노동자들이, 징병이나 위안부로 전쟁에 동원되어 처참한 지경에 처했던 조선인들이, 독립운동을 위해 세계 곳곳에 흩어졌던 지식인들이 제자리를 찾아 조국으로 되돌아오기 시작했다. 이제 고향을 떠난 모든 이들에게 제자리를 찾아 고향으로 귀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경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주체적 권리를 회복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했지만 여러 정치적, 사회적 요인에 따라, 특히 어디에서 해방을 맞는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첫째, 고국이나 고향으로 곧바로 귀환하는 경우와 둘째, 귀환하고 싶어도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귀환할 수 없는 경우로 나뉜다. 예를 들어, 사할린 조선인들처럼 정치적인 여건 때문에 아예 귀국 길이 막히거나, 강제징용으로 일본으로 끌려갔던 일부 조선인들처럼 귀환하다가 불행한 사고를 당해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¹ 물론 귀환을 하더라도 이미 고국에 삶의 터전이 없는 경우, 그들을 기다리는 현실은 붓집을 지고 떠나거나 쫓겨났던 그 시절보다 더 험악하기도 했다.²

오늘날의 중국동포는 해방 이후 중국에 정착한 조선인 디아스포라의 후손들이다. 물론 그들에게 귀환과 정착 사이의 선택은 결코 용이한 결정이 아니었다. 당시 그들이 처한 환경은 복잡 미묘했다. 해방에 곧이어 한반도에서는 새로운 국가 건설의 이념과 정치적 주도권을 둘러싼 민족 내부 분열이 극심했다. 지리적으로 보면 38선 이북은 소련군이, 이남은 미군이 점령했다. 그 분쟁은 각각의 경계 안에서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한편, 중국 역시 극도로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에 놓여 있었다. 해방 이전까지 국민당과 공산당이 함께 공동의 적인 일본에 맞서 협력하였으나, 일제의 존재가 무력화되자 곧이어 국공 양당의 치열한 주도권 싸움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혼란은 동북지역 조선인 디아스포라에게도 심각한 불안 요인으로 작용했다. 게다가 일제 패망 직후 동북지역을 점령하던 소련군 역시 국민당 정부와의 협약에도 불구하고 자국 이익의 실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협의 이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방 직전 200여만 명에 달하던 조선인 디아스포라 중에 해방과 더불어 절반쯤이 조국으로 귀환하고, 나머지 절반은 중국에 정착한다.³ 물론 이 선택은 대다수가 정치적 이념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그들이 종래에 살던, 피땀으로 가꾼 '이주지를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이광일, 2003: 61).

1. 일제에 강제징용으로 끌려갔던 조선인 7천5백여명이 해방을 맞아 8월 24일 '우키시마호' 일본해군 소속 전함을 타고 귀환하던 중, 교토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의문의 폭파사고로 인해 5천여명이 희생되었다. 이 사건을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이라고 한다.
2. 해방기 귀환민들의 현실을 다룬 황순원(1946)의 소설 「두꺼비」나 채만식의(1949) 「소년은 자란다」 에도 이러한 상황이 서술되고 있다.
3. 해방을 맞이한 즈음 동북지역에 거주하던 조선인은 약 216.3만 명이었다. 해방과 더불어 70여만 명에 달하는 조선인들이 한반도로 귀환하고, 1947년에 이르러서는 약 140만 명이 남는다. 이들 중 대다수는 공산당 점령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고, 국민당 점령 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인은 약 9만 명 정도에 그쳤다. 허명철(2015: 45), "조선족가치관 변천연구: 광복전후 가치의식을 중심으로", 『통일인문학』, 제62집,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참고.

따라서 해방 이후 중국 동북지역 조선인들의 상황은 귀환과 정착을 둘러싼 복합적인 문제를 수반하였으며, 이는 연구자들에 의해 정치적, 사회적 관점에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특히 해방 이후 조선인의 귀환 문제를 중심으로 한 연구들은 귀환이 단순한 물리적 이동이 아니라 정체성 혼란과 사회적 갈등을 동반한 과정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다(염인호, 2020; 윤휘탁, 2012). 문학적 접근에서도 조선족 소설이 해방 이후 조선인들이 겪은 이념적 대립과 귀환의 현실적 난관을 어떻게 서사화했는지 분석한 연구가 있다(최병우, 2015). 또한, 탈식민주의적 관점에서 해방기 재중 조선인의 현실 인식과 시적 대응 방식을 조명한 연구도 이루어졌다(윤의섭, 2006).

이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해방이 중국 동북지역 조선인 디아스포라에게 어떠한 의미를 지녔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해방이 단순한 식민 통치의 종결을 넘어 '제자리 찾기'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는지, 그리고 이 제자리 찾기 과정이 어떠한 형태로 구현되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해답의 단서를 해방기⁴ 중국 동북지역 조선인의 시문학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해방기 시문학은 해방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개인의 감각과 정서를 통해 직관적으로 포착하는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해방기의 복잡한 현실이 조선인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체화되었는지를 규명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시문학의 특성상 해당 시대의 인식을 첨예하게 드러내면서도 시간을 '현재성'으로⁵ 드러낸다는 점에서, 급격한 상황의 변화를 보다 섬세하게 분석하기 위해, 시대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하는 구술자료도 함께 참고하고자 한다.

II. 주권 회복과 생존 투쟁: 해방의 양면성

1945년 8월 15일은 35년간 이어진 일제의 식민 지배가 종식되고 우리 민족이 주권과 정체성을 회복할 날로, 한반도의 역사에서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이 숭고한 역사적 사건의 감격과 환희는 문학작품, 특히 시문학에서 격정적으로 형상화된다.

한반도에서는 1945년 12월, 중앙문화협회에서 『해방기념시집』을 발간하며 시단에서는 처음으로 해방의 기쁨을 기념했다. 이어서 1946년 4월에는 박세영을 중심으로 조선프

4. 이 연구에서 언급하는 중국의 '해방기'는 1945년 8월 15일 이후부터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1949년 10월 1일까지의 시기를 의미한다.

5. 시의 시간이 '현재성'이라는 것은, 그 시간성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적 요소가 함께 응축되어 있음을 뜻한다. 이는 직선적으로 흘러가는 소설이나 역사적 서술의 시간성과는 구별된다. 김준오(2009: 73), 『시론』, 삼지원, 참고.

롤레타리아문학동맹 시인들이 『햇불』을 발간했고, 같은 해 8월에는 조선청년문학가협회 경남지부에서 『날개』를 발간했다. 이러한 해방기념시집들은 좌·우를 막론하고 해방의 의미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하고 기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1947년 3월, 중국 동북지역에서도 훗날 중국동포들의 해방기념시집으로 평가받는 『태풍』이 발간된다.⁶ 이는 한반도에서 발간된 해방 기념시집보다 다소 늦게 출간되었지만, 당시 내전이 진행 중이던 중국의 정세를 고려할 때, 오히려 신속하게 해방의 감동을 문학적으로 재현하며, 해외 조선인의 해방 인식을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시집에 참여한 시인들 대다수는 만주 문단에서 활약하던 문인들이었다. 만주 문단의 대표주자였던 염상섭, 박팔양, 안수길 등이 해방과 함께 귀환하고, 귀환하지 않은 자들은 기존 거주지에 남아 창작활동을 지속했다.

이 연구에서는 『태풍』과 이 시기에 창작된 리옥, 설인, 김례삼 등의 시를 논의 대상으로 설정한다. 이들의 시는 해방기에 새로운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창작된 중국동포 1세대 문학작품으로 평가받는다. 이 시기 시문학의 두드러진 특징은 무엇보다도 광복의 감격과 환희를 노래한다는 점이다. 이는 식민 통치 기간 동안의 억압과 절망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 해방의 순간을 집단적으로 노래하는 정서로 나타난다.

1930년에 심훈이 「그날이 오면」에서 염원했던 해방의 열망이 해방기 동북지역 조선인의 시문학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심훈이, “그 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은/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 날이/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 주기만 할량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올리 오리라”라고 읊었던 것과 같이, 동북지역 조선인들의 해방기념 시편에서도, 마을이나 거리 등지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한뜻이 되어 ‘만세’를 부르고 광복의 감격을 경축하는 장면들이 생동감 있게 형상화된다.

“얼마나 부르고 싶었더냐, 바랐던 것이냐/ 빼앗겼던 조국을 다시 찾은 이 만세 소리가/ 항일투쟁 때/ 세 아들을 왜놈에게 빼앗겼던 할아버지/ 채수염을 부르르 떠 시며/ 《일장기》 짓밟고 서서 부르는 만세소리/ (중략) 만세소리 울려 퍼져 산을 립 되고/ 환호성은 메아리로 하늘땅을 뒤흔들 듯/ 실로 땅속에서 뜬눈으로 문힌 순국의 열사들도/ 이 시각 꿈틀 돌아누웠으리라! 아프고 쓰러던 한 많던 매들이/ 영영 풀리던 날/ 잊지 못할 너 8월 15일이여!” - 설인, 「환호성」(1945.8), 부분

⁶ 이 시집에서는 해방 이후 중국 동북지역에 정착한 16명의 시인이 쓴 23수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

1921년 연길에서 태어난 설인은 이 시를 통해 빼앗겼던 조국을 다시 찾은 광복의 기쁨을 희망적으로 노래했다. 시 전반에 등장하는 다양한 인물들은 식민 통치의 고난을 함께 겪은 조선인의 집단적 인식을 상징한다. 전쟁터에 세 아들을 빼앗긴 할아버지는 채수염을 부르르 떨며 일장기를 짓밟고, 밭에 나가셨던 아버지는 무릎을 치며 환희의 통곡을 만세 소리에 신는다. 원치 않던 전쟁터에 끌려가야만 했던 마을 청년들은 거리를 뛰쳐나와 목청이 터져라 만세를 부르며 주체할 수 없는 해방의 감동을 표출한다.

설인의 시에 등장하는 이들의 외침은 단순한 기쁨의 표상에 그치지 않는다. 이주 1세대로부터 그들의 후손에 이르기까지 오랜 세월 억눌렸던 울분과 한이 터져 나오는 순간이자, 민족의 수난과 투쟁의 역사를 아우르는 드디어 ‘되찾았다’는 상징적 선언이다. 나아가서 시인은 만세 소리가 메아리가 되어 하늘땅을 뒤흔들고, 오랜 세월 땅속에서 뜬눈으로 잠들어 있던 순국열사들마저 되살아나는 모습을 통해, 단순히 식민 지배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민족적 영광과 자존감을 회복하고 민족적 정체성을 회복하는 사건으로 형상화한다.

또한 ‘해방’은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다양한 시적 기호로도 표상된다.

“북극성이 하늘 높이 빛나고/ 청청강수가 맑고 맑게 흐르는 곳/ 범나비 희롱하는 무르녹은 잔디밭/ 무궁화여 금수강산은 다시 너에게 돌아왔도다/ 반만년의 역사는 너의 행복/ 가없는 지평선은 너의 이상/ 오오 무궁화여/ 향그럽게 피어라-삼천리 고을마다!”-박귀송(1947), 「무궁화여, 아름답게 피어라」, 부분.

박귀송의 시 「무궁화여, 아름답게 피어라」에서는 ‘무궁화’, ‘금수강산’, ‘삼천리 고을’과 같은 국가적·민족적 상징을 통해 광복의 감격과 환희를 형상화한다. ‘다시 너에게 돌아왔도다’는 빼앗겼던 조국의 자연과 역사를 되찾았다는 자각의 상징이다. 또한 시인은 ‘빗바람 사나운 날’과 ‘밀려드는 서리’로 은유되는 일제의 억압적 상황 속에서 “음침한 숲속을 쫓겨다니며 형제를 잃고 부모를 여의고” 숨죽였던 민족적 고통을 상기시키고 있다. 그러나 시인은 북극성이 다시 하늘에 빛나고, 청청한 강물이 흐르며, 잔디밭 위로 범나비가 날아드는 장면을 통해 해방의 희망을 형상화한다. 이러한 경쾌한 자연적 이미지는 단순한 풍경 묘사를 넘어, 민족의 상실된 역사와 산천에 대한 깊은 감동의 반영이다.

현남극의 시 「무궁화부」(1947.3)에도 이와 유사한 정서가 나타난다. 그는, “사나운 비바람에 오랫동안 시들었다/ 아즈랑이 봄을 맞아 보람있게 뿌리신/ 선렬들의 피로써 인제 다

시 새로핀 무궁화”를 읊으며, 무궁화라는 상징을 통해 ‘제자리 찾기’의 열망을 형상화한다. 이때 ‘무궁화’라는 국가 상징 기호는 ‘해방’이라는 역사적인 사건과 만나서 민족정체성의 회복을 상징한다. 따라서 시인이 열망하는 “오오 무궁화여/ 향그럽게 피어라-삼천리 고을 마다!”는 그동안 모든 조선인이 갈망하던 ‘제자리 찾기’의 시공인 귀환의 욕망으로 확장될 수 있다.

이외에도 해방을 상징하는 대표적 기호로 태극기가 있다. “태극기는 3·1운동 이래 식민 지시기에 금지된 상징이었으며, 그리하여 ‘독립’의 표상이자 ‘통합’의 매개, 나아가 민족적 정통성을 상징”(천정환, 2009: 87)한다.

“진탕을 밟으며 중국사람들 틈에 끼어/ 조그마한 기를 흔들면서 달음박질하는
아이들/ 산뎀미같은 전차가 지나갈때마다/ 귀여운 두팔을 나풀거리며 만세 만세
한다/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쥐어보는 태극기/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불러보는 만
세/ 뚫어오르는 뜨거운 눈물속에서/ 나는 그네들 님의 깨끗함을 고마워한다.”-박
귀송(1947), 「천사」, 전문

박귀송의 시 「천사」는 해방의 기쁨을, 태극기를 쥐고 뛰어다니는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그 감격을 생생하게 형상화한다. 이 아이들은 만주에서 태어난 조선인 이주민들의 자녀들로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쥐어보는 태극기’를 흔들며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불러보는 만세’를 외친다. 이들의 만세는 이전의 ‘천황폐하 만세’, ‘대일본제국 만세’, ‘만주국 만세’와 같은 강요된 구호와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진정한 조선 독립의 기쁨을 담은 자발적인 외침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만세는 단순히 어린아이들의 행위로 그치지 않고, 해방을 맞이한 모든 조선인의 집단적 감정을 대변하는 행위로 표상된다.

또한, 이 시기의 동북지역의 시문학에서는 소련군이 해방의 유력한 방조자로 형상화되는 점이 주목된다.

“홍겨운 트럭우에/ 얼핏 보기에 낯설어도/ 그 보얀 얼굴 푸른 눈동자를 속속들
이 보면/ 언제나 극진히 친해 본듯한 붉은 군대/ 자유롭게 흠어 앉아 돌아서서/ 나
를 보고 우리를 보고/ 반갑게도 손을 들어 높이 들어/ 우라 우라 좋와라 힘껏 부르
메로/ 우리도 우렁차게/ 우라 우라 불렀거니”-리욱(1949), 「그날의 감격은 새로워」,
부분

1945년 8월부터 1946년 5월까지, 이른바 ‘알타협정’에 근거하여 소련군이 만주를 점령했다. 소련군의 대일 참전은 자국의 이익을 위한 정치적인 이해타산에서 비롯되었으나, 중국과 조선에서는 만주와 조선에 출병하여 일제를 몰아낸 소련을 ‘해방자’ 또는 해방의 ‘방조자’로 인식했다. 이러한 정서는 시문학에도 반영되어 이 시기 이북에서는 이찬이 “우라-스타-린! 우라-스타-린! 조선 독립 만세! 푸로레타리아 해방 만세!”(1946)라고 노래하고, 동북 지역에서는 리옥이 붉은 군대를 환호하며 ‘우라 우라’를 외쳤다. 소련군을 향한 이러한 환호와 감격을 통해, 해방 당시 이북과 중국 동북지역 조선인들이 소련의 존재와 역할을 긍정적으로 수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이 시기 해방을 노래한 작품들이 전체적으로 “해방이라는 역사적 순간을 포괄하는 시적 처리 방법이 지극히 단선적”(권영민, 1986: 143)이라는 비판을 받고 했다. 그러나 해방 전후를 ‘빼앗김-슬픔’/‘되찾음-환희’라는 이분법적 서사로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이러한 단선적인 시적 처리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방 찬가에 담긴 환희의 이면에는 분명히 해방의 또 다른 민낯이 존재했다. 만세의 짧은 영광이 지나고 일상이 다시 재개되었을 때, 낯선 이주지에서 하층민의 삶을 영위해가던 대다수 조선인은 곧이어 닥쳐올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공포를 감지했을 것이다. 해방이라는 기쁨은 예상치 못한 공포와 뒤섞이며, 새로운 현실 속 불안의 요소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1945년 8월 16일, 중국 동북지역의 관동군은 일제의 패망에 따라 ‘즉시 전투 행동 정지’ 명령을 받고 무장을 해제했다. 이후 주요 도시들은 신속하게 소련군에 의해 점령되었다. 하얼빈은 8월 18일에, 당시 만주국의 수도였던 신경(현 장춘)을 비롯해 심양, 길림 등은 19일에, 여순과 대련은 22일에 소련군에 의해 점령되었다(윤휘탁, 2012: 187). 곧이어 미처 피난하지 못한 일본인을 향한 소련군의 무자비한 약탈과 폭행이 시작된다. 소련군은 가옥에 침입해 식량을 약탈하고, 여성들을 겁탈하고, 저항하면 총칼로 협박하는 등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했다. 특히 일본 여성이라면 나이와 관계없이 성폭력의 주요 대상이 되었다(윤휘탁, 2012: 169). 이러한 폭력은 조선인과 중국인 여성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당시 조선인 여성들은 이러한 폭력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보호하고자 했다. 머리를 자르고 얼굴에 검뎁을 묻혀 자신이 여자라는 사실을 숨겼고, 일부는 왼쪽 가슴에 붉은 깃발을 상징하는 붉은 천조각을 수놓고 다녔다(중국조선족청년학회, 1989: 119).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련군은 일본인과 조선인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했고, 조선인들 역시 이와 같은 공포의 대상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었다.

해방 이전, 많은 조선인은 해방이 이루어지면 모든 억압이 사라지고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라는 낙관적 환상을 품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오랫동안 열망했던 해방은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던 포악한 ‘늑대’보다 더 두려운 ‘호랑이’와 함께 찾아왔다.⁷ 표면적으로 소련군에 의해 그들을 속박했던 ‘신민’이자 만주국의 ‘2등 국민’이라는 굴레가 벗겨지게 되었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그들은 남의 땅에서 진짜 ‘타자’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은 해방 이후 조선인들의 기대와 현실 사이의 괴리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민족적 해방의 기쁨이 단순히 긍정적 현실로만 귀결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이 동북 지역의 조선인들은 해방이라는 역사적 전환점을 환희와 공포라는 이중적 현실로 맞이했다. 이는 단순히 특정 계층에 국한된 감정적 반응이 아니었다. 시인들이 해방의 환희를 노래했다고 해서 그들이 환희에만 몰두했으며, 민중이 오로지 공포 속에 머물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물론 해방의 그 순간, 동북지역의 모든 조선인들이 고국을 떠올리며 함께 만세를 외치고 조국의 노래를 부르며 환호했던 건 사실이다. 그러나 그 환희의 이면에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불안과 두려움이 내재해 있었다.

그렇다면 당시 시인들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 시인들은 해방의 열망과 감격을 ‘현재적 서정’으로 형상화하였으며, 이는 단순히 감각적 표현이 아니라 시적 시간의 본질적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시적 시간은 과거와 미래가 현재 속에서 응축되어 지속되는 시간으로, 이는 역사적 서술이나 소설적 시간의 선형적 진행과 구별된다. 소설이 해방의 열망과 감격의 상승, 변질, 훼손되는 과정을 직선적으로 전개한다면, 시적 시간은 그러한 변화의 흐름을 초월하여 모든 시간적 경험을 하나의 순간으로 응축하고 서정적으로 형상화하는 것이다(김준오, 2009: 75).

해방은 우리 민족에게 일제 35년이라는 질곡에서 벗어날 자유를 선사했고, 잃어버린 민족적 정체성을 되찾는 역사적 전환점이었다. 비록 곧이어 그 해방의 감격이 점차 변질되고 점점 이질적인 요소들이 뒤섞여 복잡해져 갔지만, 시인들은 그중에서도 가장 본질적인 사건인, 우리 민족의 공동체적인 열망과 감격에 집중했던 것이다. 물론 그들의 시어 속에도 희미하게나마, 혹은 상징적 형상을 통해, 환희 속에 내재된 공포와 혼란의 조짐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7. 이주 3세대 조선족 작가 최국철은 1945년 해방 직후부터 공산당의 토지개혁이 완료된 시점까지를 배경으로 한 장편소설 『광복의 후예들』(2017)에서 이 시기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큰일 났다야, 일본아들이 풀기우면 사는 맛이 날것 같드니만... 승내가 뒤문으루 도망가니 호랭이가 앞문으루 쳐들어오는구면... 저 마우재털은 암내 말구 양해(밭정)나분 아무짓이라도 마구 한다야, 이거 큰일이야.”

Ⅲ. 토지개혁과 생존 전략: 귀환과 정착 사이

1946년 5월, 소련군이 중국 동북지역에서 철수를 시작했다. 과거 일제가 ‘만주국’을 내세워 지배하던 이 지역은 중공업이 발달하였고, 전력이 풍부했으며 관동군이 남긴 대량의 무기가 잔존하고 있었다. 이러한 전략적 가치를 지닌 동북지역은 해방 직후 국공 양당의 사활을 건 쟁탈전의 중심지가 된다. 그 틈바구니에서 조선인들은 토비들과⁸ 일부 중국인들로부터 노골적인 보복과 폭력을 당하기 시작했다.

당시 상황의 심각성은 구술 증언을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토비난시에 나도 왕청으로 몇 번 뛰었습니다. 그때 한족들은 조선 사람들은 다 혁명을 하는 줄로 알지요. 하여 토비놈들은 조선 사람만 보면 붙잡아 죽였습니다. 다리를 저는 저의 고모부가 부엌에서 불을 때고 있는데 토비들이 들어오더니 老高麗라고 하면서 끌고가 총을 쏘서 죽였습니다. 우리 부락에서 동녕토비들에게 하루에 조선 사람들이 80명이나 죽었습니다.”(김춘선·리광평, 2012: 480-482)

만주국 시기, 동북지역의 조선인에 대한 중국인의 시선은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았다. 일제가 한족 지주와 농민들의 토지를 헐값으로 빼앗아 조선인에게 임대해 수전을 경영하게 한 정책은 한족들의 원한을 깊이 샀다. 여기에 더해 일제가 의도적으로 민족 차별 정책을 시행하며 조선인과 중국인 사이에 깊은 갈등을 조장했다. 조선인은 일본인보다는 아래이고 중국인보다는 위라는 애매한 ‘이등 국민’이라는 지위를 부여받았다. 그러나 이는 허울뿐이었다. 실제로 만주국의 조선인들은 돈도 권력도 없었기 때문에 중간자의 위치를 점유할 능력조차 없었다.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의 교묘한 민족 이간 정책은 이들의 관계를 더욱 갈라놓았다. 예를 들어, 일본인은 흰색 통장으로 고급스러운 입쌀을, 조선인은 누런색 통장으로 보리쌀을, 중국인은 적갈색 통장으로 콩깨묵이나 수수 같은 하급 식량을 배급받게 했다.(중국 조선족청년학회, 1989: 128) 이러한 배급 제도는 일제가 시행한 간교한 이간책이었다. 조

8. ‘토비’는 국민당 군벌부대의 도망병, 위만 군대 해산병, 만주국의 경찰, 헌병, 특무대원 출신, 그리고 살인자, 강도 등의 무리로 그 수가 20만여 명에 이르렀다. 이들 토비는 일본 패잔병, 위만 패잔병들의 무기를 압수해 무장을 하여 조직적으로 노략질을 했는데, 때로는 국민당군이 이들을 이용하기도 했다. 윤인진(2004: 52), 『코리아 디아스포라』, 고려대학교출판부, 참고.

9. 재만 한인사회에 퍼져 있었던 ‘이등 국민론’은 우월한 지위를 누리고 싶어 하는 ‘조선인들만의 상상의 공동체’의식이 파생시킨 허상이었다. 윤휘탁(2001: 170), “滿洲國의 2等國(公)民, 그 實像과 虛像”, 『역사학보』, 제169권, 역사학회, 참고.

선인과 중국인을 갈라놓음으로써 일제의 적대세력을 분산시키는 술책이었다. 물론 또 일부 조선인 친일 세력은 일본의 앞잡이로 활동하며 중국인을 멸시하고 우월감을 드러냄으로써, 두 민족 간의 갈등을 더욱 악화시키는 데 일조하기도 했다.

일제의 패망 이후, 이러한 간교한 보호 장치가 사라지자 그동안 조선인에 대해 불만이 나 중요성을 지녔던 일부 중국인들, 특히 토비들은 억눌렸던 분노와 증오를 폭발시키기 시작했다. 이들은 조선인 마을을 습격하고 폭행이나 약탈, 살해 등을 자행하기 시작했다. 또한 이들은 일제 패잔병들로부터 무기를 압수해 무장하고 조직적인 약탈을 지속했다(윤인진, 2004: 52).

기록에 의하면, 산간 지역의 조선인 마을 전체가 토비들에게 전멸당하기도 했다(윤휘탁, 2012: 190). 이른바 조선인을 향한 ‘마녀사냥’이 공공연히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폭력으로 인해 해방 직후 동북지역은 극심한 혼란 상태에 빠졌으며, 조선인들은 생명의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다.¹⁰ 여기에 더해 국민당의 강제 귀환 정책이 실시되면서 조선인들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해방 직전 소련과 국민당이 체결한 ‘우호동맹’에 따라, 소련군은 철수하면서 심양, 장춘 등 동북 지역의 대도시와 철도를 국민당에 이양했다. 따라서 해방 이후 옛 만주국의 대도시는 거의 모두가 국민당의 영향권에 편입되었다. 해방 이전부터 조선인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던 국민당은 만주 문제와 연관된 『동북복원계획강요초안』 16조에, “일본 점령시 동북 지구에 이주한 한인은 귀국을 명하고 그 재산에 대해서는 조례에 따라 처분한다”고 명시했다(윤휘탁, 2012: 187). 즉 동북지역의 조선인을 모두 송환한다는 방침을 제정한 것이다. 조선인들이 힘겹게 개척했던 땅과 주거지, 그리고 재산은 일제의 잔재로 간주되어 몰수 및 차압 대상이 되었다(이상우, 2015: 63).

“일본놈들이 망하고...그해 한해농사를 다 지어놓고 탈곡까지 말끔히 끝낼가 하는데 난데없이 국민당군대가 또 뛰어들었다. 집을 포위하고 총구멍을 들어대며 입쌀을 내놓으라는 것이었다. 그해 한해 농사를 거저 몽땅 털리우고 말았다.” - 김리숙 가족(중국조선족청년학회, 1989: 88)

10. 기록에 따르면, 일제 패망 직후 국민당 군대가 점령한 지역에서만 조선인 176명이 사망하였으며, 부상자는 1,866명, 구급된 인원은 3,468명, 강간 피해자는 약 320명, 모욕을 당한 인원은 12만 8,085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1947년에는 8,468명이 체포되었으며, 2,042명이 폭력에 의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산간 및 벽지와 같이 피해가 더욱 심각했던 지역에 대한 조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 피해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염인호(1994: 204), 『조선의용군 연구-민족운동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참고.

1946년 4월부터 9월 사이, 국민당이 점령한 동북지역에서 조선인들은 무려 7만 900ha에 달하는 토지를 빼앗겼다(윤휘탁, 2012: 188). 생존 기반을 잃은 많은 조선인은 더 이상 동북 지역에서 거주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이들은 귀향길에 올랐지만, 그 선택조차 쉽지 않았다. 무일푼으로 떠나왔던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여정 역시 무일푼이었다. 고향에는 반갑게 맞아줄 가족이나 친척이 없는 이들도 많았고, 만주에서 오랜 세월 살아온 이들에게는 이미 그곳이 제2의 고향처럼 자리 잡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현실적이고 심리적인 이유로 인해 일부 조선인들은 귀향 대신 공산당 점령 지역으로 피난을 갔다(윤휘탁, 2023: 245).

국민당과 달리 공산당은 동북지역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선인의 지지를 얻어내는 것이 절실히 필요했다. 이에 따라 공산당은 조선인을 존중하는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했다. 1946년 연변지역을 장악한 공산당은 그해 7월부터 1948년 4월까지 조선인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토지개혁을 시행했다. 또한 이중국적을 승인하며¹¹ 조선인들에게 유리한 사회적 입지를 마련해줬다. 가난한 농민들에게 구제 양곡을 배급하고, 종자와 가축을 지원하였으며, 황무지를 개간하고 농사도 지을 수 있도록 했다(박춘란, 2019: 120).

이와 같은 정책은 조선인의 사회적, 정치적 지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90% 이상이 빈농이나 소작농이었던 동북지역의 조선인들은 공산당의 토지개혁을 통해 꿈에서나 그리던 땅 주인이 된 것이다(김나, 2024: 353). 이러한 상황에서 아직 귀환을 결정하지 못했던 조선인들은 해방의 기쁨을 노래하던 데서부터 공산당의 토지개혁과 정책적 혜택을 찬양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아니 이게/ 토지집조라는게임둥?/ 그럼 정말/ 우리 이름으로 나왔음둥?/ 에이 구, 원 기차기도 해라/ 중략/ 정말 꿈같소꼬마/ 내 나이 쉰살 거진 먹두라/ 온성에서 만주까지 흘러왔지만/ 실로 개값이도 못가면서/ 살아왔더니/ 우리집도 이젠 살 때를 만났다고/ 중략/ 장개석을 때려엿는 내전 지원 더 잘하고/ 주인된 우리 구실 생산으로 잘하리다 “ -김례삼, 「토지집조」(1947.6), 부분

11. 중국공산당은 “현재 그들은 중국국민으로 중국국민이 가지는 권리를 가지고 중국인민의 해방전쟁에 참가할 수 있고, 조선이 외적의 침략을 받을 때에는 그들이 원한다면 언제라도 조선국민의 신분으로 조선에 돌아가 반침략전쟁에 참가할 수 있다”고 공표했다. 구지영(2011: 22). “이동하는 사람들과 국가의 길항관계-중국 조선족과 국적에 관한 고찰”, 『동북아문화연구』, 제27권, 동북아시아문화학회, 참고.

김례삼의 시 「토지집조」는 공산당의 토지개혁을 통해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게 된 기쁨을 생생하게 형상화하고 있다. 이 시에서는 정말 꿈같은 현실에 거듭 ‘정말임둥’, ‘기차기도 해라’, ‘꿈같소꼬마’ 등 표현으로, 오랜 세월 자신의 땅을 가져보지 못한 빈농의 삶에서 벗어나 비로소 자립의 기회를 얻은 현실에 대한 감격을 드러낸다. 온성에서 만주까지 떠돌며 생계를 유지해야 했던 조선인 빈농의 삶은 ‘개값이도’ 못할 정도로 열악하였으나 이제 공산당의 토지개혁으로 새로운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평생 자기 땅을 가져보지 못하고 굶어죽지 않기 위해 남의 땅에 이주해 갓은 수모를 당하며 한 많은 삶을 영위해 온 이들에게 갑자기 자기 이름자가 박힌 땅이 생긴다는 것은 소작농으로서는 꿈에나 그려볼 수 있었던 최고의 이상이 실현되는 순간이었다. 이러한 감격은 김례삼의 다른 시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제 나라 제 땅도 없는 그 신세/ 산도 설고 물도 설은 이국땅이라/ 강너머 고국하늘 바라다보며/ 남몰래 흘린 눈물 얼마였드뇨?/ 기박한 고농살이 딱한 신세라/ 천근같은 그 멍에에 눌러 살던 몸/ 지주놈 학대마저 기막혔는데 (중략)/ 황소같은 고역살이 50평생에/ 옹바르신 토지개혁 향도로 하여/ 옥답이 차례진 꿈만 같은 새 세월/ 빈고농도 의젓이 허리 펴 날 왔으니/ 얼씨구나 절씨구나 제 흥에 겨워/ 고농살이 리령감도 텅실텅실/ 50평생 처음으로 춤췄다오.” - 김례삼, 「고농살이 리령감 춤췄다오」(1947), 부분

이 시 역시 산도 물도 낯선 이국땅에서 평생을 소작농으로 고단하게 살아오다가 공산당의 토지개혁 덕분에 처음으로 자신의 땅을 가지게 된 조선인의 감격을 형상화한다. 이영감은 밤마다 고국 하늘을 바라보며 그리움의 눈물을 삼켰으나, 이제는 토지개혁에 허리를 펴고, “얼씨구나 절씨구나 제 흥에 겨워” 50평생 처음으로 환희의 춤을 추었다. 이영감의 ‘춤’에 나타난 ‘현재성’에는, 19세기 말부터 청조의 엄한 봉금령에도 ‘월강좌’를 무릅쓰고 간도로 넘어가 농사를 짓던 세대들로부터 일제에 의해 만주국으로 강제이주 당했던 조선인의 한 맺힌 역사가 담겨 있다.

동북지역의 조선인 모두에게는 굶주림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 이들은 강제징용 등으로 일본에 건너가 상대적으로 단기간 거주했던 조선인들과 달리, 일찍이 중국의 동북지역에 터를 잡고 대를 이어가며 가족 단위로 마을을 형성한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정착 형태는 이들의 귀환이 단순히 개인적인 이동이 아니라, 가족 단위로 이루어지는 또 다른 이주의 형태였음을 시사한다(최정아, 2009: 362). 그리하여 해방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제자리를 찾아 나섰고, 중국내 상해나 항주 일대의 조선인들이 신속히 귀환을 선택했지만, 동북지역의 조선인들은 귀환 여부를 쉽게 결정하지 못했다. 이들은 마음속으로 늘 고향을 그리워했으나, 현실적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 동북지역엔 그래도 소작을 맡은 땅과 비바람을 피할 주거지라도 있었지만 오랜 세월 떠나있던 고향에는 더 이상 그들을 기다릴 가족이나 생활 기반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그들의 귀환은 단순한 탈식민지적 흐름 속에서 이루어진 민족정체성 회복의 과정이라기보다는, 경제적 요인을 고려하여 귀환과 정착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복합적인 문제였다.

이런 상황에서 공산당의 토지 정책은 조선인들에게 분명 거부하기 어려운 유혹이었다(최병우, 2011: 112-179). 공산당의 토지개혁은 조선인들에게 땅을 소유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제시했다. 이는 고향으로의 귀환보다 현재 거주지에 정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비록 공산당의 토지 정책은 조선인들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나, 조선인들에게는 평생 소유하지 못했던 자기 땅을 가지게 되는 전례 없는 기회였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공산당 점령 지역의 조선인들은 공산당에 대한 지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기 시작했다. 이는 해방기의 동북지역의 복잡한 역사적, 경제적 조건 속에서 형성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선택의 결과였다.

“장백산 높은 봉을 둘러싸고서/ 널따란 서북천리 뻗은 산하를/ 혁명의 총칼들
고 넘나들면서/ 국민당 매국노를 때려부시자/ 우리는 이 강산의 젊은 일꾼들/ 민족
의 큰운명을 걸머지고서/ 송화강 깊은물을 뛰어넘으며” -박근식, 「우리의 사명」
(1947,3), 부분

“东北 이땅에서 百万/ 그토록 많은/ 反동의 徒輩/ 깨끗이 물리친 이제/ 아버지/
저는 또 가야겠습니다. 날창을 꿰어들고/ 万里长城 넘어 넘어/ 黄河, 杨子를 건너
뛰어/ 저기/ 인민이 부르는 곳으로/ 領袖 毛主席의 나가라는 곳으로.../ 두려움 없
이/ 아낌 없이 오직/ 앞으로/ 앞으로만 달려가리다.” -설인, 「前方에서 온 消息」
(1948), 부분

두 편의 시 모두 환희와 감격의 서정적 태도와는 뚜렷이 구별되는, 강렬하고 투쟁적인 정서를 담고 있다. 이들 시에 등장하는 조선인들은 국민당과 토비로부터 느낀 공포와 억압을 투쟁적 의지와 적개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그들은 ‘국민당 매국노를 때려부시자’, ‘모

주석의 나가라는 곳으로', '앞으로만 달려가리라' 등의 구호를 통해 자신들의 결의를 다짐하며 공산당과 함께 무장투쟁에 나선다. 이들의 투쟁은, '민족의 큰 운명'이자 조선인들에게 주어진 또 다른 해방의 사명감이었다. 특히, "저기 인민이 부르는 곳으로"라는 구절은 공산당의 이념과 결속을 강조하는 동시에, 조선인들의 주체적 자아를 확립하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수많은 조선인이 공산당과 함께 무장투쟁에 나섰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 이념의 차원을 넘어, 조선인들에게 주어진 또 다른 자기 해방의 사명감과 같은 것이었다. 1946년부터 1949년 중국 건국 이전까지 공산당을 찬양하는 시문학 작품들이 다수 창작된 것도 이러한 시대적 배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실제로 당시 공산당 점령 지역에서는 전체 조선인의 5%가 공산당에 가입했다.¹² 이러한 수치는 조선인들이 생존을 위해 공산당의 정책을 수용한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공산당의 혁명적 목표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음을 시사한다. 이는 공산당에 의해 토지라는 생존 기반을 보장받고 신분과 지위가 상승되면서 그들 스스로 주체 의식을 갖게 된 것과 연관된다. 그들은 공산당과 더불어 본인들이 개척한 땅을 국민당으로부터 지켜내야 한다는 사명감을 지니고 중국내 해방전쟁에 뛰어들었다.

“몇 해 농사를 지으면서 사는데 일본이 망했다. 그 후 막내동생은 해방군에 참가했고 나도 장춘 해방전투가 한창일 때 담가대로 나갔다. 부상병들을 메어 나르는데 하루는 눈에 익은 사람이 있어 살펴보니 동생이었다. 그는 벌써 숨이 없었다. 죽은 동생을 본 나는 옆에 있는 총을 집어 들고 앞으로 뛰어가면서 마구 쏘아댔다. 그 이튿날 장춘이 해방되었다.”-림맹석 가족(중국조선족청년학회, 1989: 203)

결과적으로 수많은 조선인 청년들이 토지개혁으로 분배받은 자신의 땅을 지키기 위해, 이 땅의 새로운 주인이 되게 해준 공산당의 '신세'를 갚기 위해, 총대를 메고 중국 해방전쟁에 참여했다. 더러는 전쟁에서 목숨을 바쳤고 더러는 불구의 몸으로 돌아왔다. 이러한 투쟁의 결과, 이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과 더불어 조선인들은 피 흘려 싸운 공로를 인정받아 당연하게 중국 땅에서 주인 될 권리를 획득했다.¹³

12. 실제로 국공 내전기에 해방구였던 흑룡강성에서 12,644명, 요녕성에서 7,753명, 길림성에서 38,474명에 이르는 조선인이 중국공산당에 입대했다. 이것은 해방구 조선인 전체 인구의 5%를 차지한다. 구지영(2011: 24), 위의 논문, 참고.

13. 중국동포들은 자신들의 역사를 '투쟁사'로 인식한다. 이는 그들이 청 왕조의 민족 동화정책, 일제의 식민 통치, 국민당의 민족 배척정책에 맞서 싸우며, 반제·반봉건 혁명, 민족 독립운동, 항일 무장투쟁, 중국 내 해방

IV. 결 론

1945년 8월 15일, 해방은 중국 동북지역의 조선인에게 두 가지 의미에서의 ‘해방’을 가져다주었다.

첫 번째는, 일제로부터 주권을 회복하게 된 민족적 해방이다. 중국 동북지역의 조선인들 또한 35년이라는 일본의 식민 지배로부터 벗어나 민족적 주권과 정체성을 회복하는 기회를 맞이했다. 그러나 그 과정이 단순히 감격과 환희로 점철된 순간만은 아니었다. 해방은 환희와 감격, 공포와 불안이 공존하는 복합적 산물이었다. 민족적 정체성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동북지역의 조선인들은 일제의 억압을 극복해나갔지만, 그와 동시에 새로운 권력 구조 속에서 생존을 모색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했다. 그들은 토비들과 국민당의 위협, 그리고 불안정한 현실을 통해, 해방이 단순한 축복만이 아니라 새로운 투쟁의 시작이었음을 자각하게 되었다.

두 번째는, 공산당의 토지개혁을 통해 소작농에서 자작농으로 전환됨으로써 생산과 분배의 주체로 자리 잡게 된 경제적 해방이다. 이는 조선인들이 한반도에서부터 이어져 온 농노와 같은 위치에서 벗어나, 주체적 생산자로서의 정체성을 새롭게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그들에게 이전에는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전례 없는 감격과 환희를 제공했다. 특히 공산당의 토지개혁은 조선인들에게 단순한 경제적 변화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이는 그들이 새로운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는 과정으로, 이를 위해 수많은 조선인들은 자발적으로 중국내 해방전쟁에 참여하여 상당한 희생을 감수했다.

결과적으로 중국 동북지역의 조선인들은 지속적인 투쟁과 희생을 통해 새로운 역사적 주체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조선인 디아스포라’라는 이주민 정체성에서 벗어나, ‘중국 조선족’이라는 새로운 정체성과 사회적 위상을 확립했다. 이는 해방 이후 그들이 찾은 ‘새로운 제자리’였다.

전쟁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조국과 민족의 독립을 위해 투쟁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 내 해방과 중화인민공화국 건립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이러한 투쟁의 공로로 연변조선족 자치주가 설립되었으며, 이는 중국의 건국 과정에서 조선족이 기여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자 권리로 인식되고 있다. 전은주(2019: 3), 『한중수교 이후 재한조선족 디아스포라 시문학에 나타난 정체성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참고.

■ 참고문헌 ■

- 권영민(1986). 『해방 직후의 민족문화운동연구』. 서울대출판부.
- 김준오(2009). 『시론』. 삼지원.
- 김춘선·리광평(2012). 『중국조선족사료전집 역사편: 이주사 11권』. 연변인민출판사.
- 연길한글연구회편(1947). 『颱風』. 연길한글연구회.
- 윤인진(2004). 『코리아 디아스포라』. 고려대학교출판부.
- 이광일(2003). 『해방 후 조선족 소설 문학 연구』. 경인문화사.
- 중국조선족청년학회 편(1989). 『중국조선족이민실록』. 연변인민출판사.
- 함석헌(1996). 『뜻으로 본 한국역사』. 한길사.
- 구지영(2011). “이동하는 사람들과 국가의 길항관계- 중국 조선족과 국적에 관한 고찰”. 『동북아문화연구』, 제27권, 동북아시아문화학회, 15-39.
- 김 나(2024). “‘문학지리학’으로 보는 김창걸의 소설: 작가의식과 만주 ‘장소’인식을 중심으로”. 『통일인문학』, 제98집,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331-361.
- 박춘란(2019). “광복 직후 중국 동북 조선인사회의 동향- 최국철의 장편소설 『광복의 후예들』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제54권, 인학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01-131.
- 윤의섭(2006). “해방기 재중 조선인 시에 나타난 현실 인식”. 『한중인문학연구』, 제19권, 한중인문학회, 167-190.
- 윤휘탁(2001). “滿洲國의 ‘2等國(公)民’, 그 實像과 虛像”. 『역사학보』, 제169권, 역사학회, 139-171.
- _____(2012). “북한민족국가(複合民族國家)의 파탄: 만주국의 붕괴와 만주국인(滿洲國人)의 충돌, 수난”. 『중국사연구』, 제78권, 중국사학회, 161-197.
- _____(2023). “동아시아 모순의 결절지대: 만주국 붕괴 전후 만주사회의 변화와 갈등·충돌”.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114권,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15-259.
- 염인호(1994). “조선의용군 연구-민족운동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상우(2015). “초국적 이주, 중국조선족과 경계 설정”. 『한국과 국제정치』, 제31권 2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53-91.
- 전은주(2019). “한중수교 이후 재한조선족 디아스포라 시문학에 나타난 정체성 연구”. 연세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천정환(2009). “해방기 거리의 정치와 표상의 생산”. 『상허학보』, 제26권, 상허학회, 55- 101.
- 최병우(2011). “해방직후 한국소설에 나타난 귀환과 정주의 선택과 그 의미”. 『현대소설연구』, 46호, 한국현대소설학회, 159-185..
- 최정아(2009). “해방기 귀환소설 연구- ‘귀환 의례’의 메커니즘과 귀환자의 윤리를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제33권, 우리어문학회, 357-395.
- 허명철(2015). “조선족가치의식 변천연구: 광복전후 가치의식을 중심으로”. 『통일인문학』, 제62집,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33-54.

■ Abstract ■

Perceptions of Liberation among Koreans in Northeast China:
A Study Based on Poetry and Oral Testimonies

EUN-JU JEON*

This study explores the perception of liberation among the Korean community in Northeast China immediately after the 1945 liberation, based on their poetic literature and oral histories. It examines how liberation extended beyond the termination of colonial rule to function as a "return to rightful place," analyzing its connections to both national and economic identity reconstruction. The findings indicate that liberation for Koreans in this region unfolded in two dimensions: national liberation, marked by the restoration of sovereignty from Japanese colonial rule, and economic liberation, achieved through land reform policies implemented by the Chinese Communist Party.

While national liberation brought the emotional relief of sovereignty restoration, it was a multifaceted experience that also involved fear and uncertainty. Although Koreans escaped 35 years of Japanese colonial domination, they faced persistent challenges, including threats from local Chinese factions and bandits, and deportation policies enforced by the Kuomintang. These circumstances created dilemmas between repatriation and settlement, requiring continued struggles for survival. On the other hand, economic liberation through land reform allowed Koreans to transition from tenant farmers to independent landowners. This transformation not only provided economic stability but also served as a critical turning point in redefining their identity, from being part of the "Korean diaspora" to establishing themselves as "Chinese-Korean" within the Chinese socio-political framework.

Keywords: Liberation, Korean Diaspora, Repatriation, Chinese-Korean, Land Reform

■ 논문투고 : 2024년 12월 31일 논문심사: 2025년 1월 14일 - 2월 5일 게재확정: 2025년 2월 5일

* KONKUKUNIVERSITY